

## 80. 생산직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

성별	남	나이	47세	직종	생산직근로자	업무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- 개요:** 김OO은 1986년 7월 11일 (주)OO에 입사하여 조립 1반 플랜트팀에서 기계조립 및 전기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. 2001년 2월부터 다리 통증이 시작되어 점점 심해졌고, 2001년 12월 작업 중 우측 다리를 지탱한 상태에서 케이블을 들어 올리다가 우측 대퇴와 무릎에 심한 통증으로 창원 J병원을 방문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진단받았다.
- 작업환경:** 김OO은 입사 이후 기계조립과 전기조립 작업을 하였다. 전체 근무 중 70%가 출장업무이었다. 출장 업무시 기계부품의 설치 및 시운전 작업 과정에서 높은 곳(높이 1-2m)에 자주 오르내리고, 뛰어 내렸다고 한다. 이러한 일은 특히 2001년 1월에서 6월 사이 많았다고 한다. 전기설비 작업에서는 업무 중 계속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였다. 작업 중 무거운 케이블을 차서 굴러 옮기는 경우가 많으며, 지하로 내려주거나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자주 하였다.
- 의학적 소견:** 김OO은 입사 전까지 건강하였다. 입사이후 여러 번 부상을 당한 적이 있으며, 1994년 7월에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 파열상으로 2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증상이 호전되었다. 2000년 12월에는 약 1.5 m의 높이에서 떨어졌으며, 이후 앉았다 일어나면 우측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걷기가 어려웠는데 한참 동안 쉬면 호전되었다. 2001년 12월에 약 50 kg 가량 되는 무게의 케이블을 지하로부터 끌어올리는 작업하던 중 우측대퇴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, 창원 J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양측 대퇴부 무혈성괴사증으로 진단을 받았다.
- 고찰:**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퇴골두나 대퇴경부의 골절, 고관절의 탈구 등 고에너지의 충격이 발생하는 손상을 입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. 나타난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소견이다.
- 결론:** 김OO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
  - ① 기계조립 및 시운전 작업 중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으로 진단되었고,
  - ② 1987년부터 작업 중 수 회 추락하거나, 높은 위치에서 뛰어내리거나 장시간 쪼그린 작업자세로 일하였는데, 이러한 작업자세나 고관절의 충격이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만한 고에너지의 외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질병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,
  - ③ 기존에 발생한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,
 작업에 의해 악화된 업무상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